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0호 [루게 제2656호]

주제 110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음력 6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승리의 격사는 영원하라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위대한 전승의 날로부터 예순여덟돌기의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위대한 전승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누구나 승리를 바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추억한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전승에 대한 추억은 단순히 승리에 대한 회려했던 것이 아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 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세찬 분출이며 공화국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하는 긍지높은 전통과 재부가 마련된데 대한 값높은 자랑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비범한 령도와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가 안아온 기적적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한 인민대중의 힘을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보시고 침략자들과의 판가리결전에 공화국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며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적지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도하도록 하시었다.

싸우는 전선의 병사들과 후방의 인민들을 찾고찾으시며 필승의 신심과 용기, 지혜를 안겨주시고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담대한 배짱, 강인한 의지와 평활한 작전지휘로 적들의 모험적인 공세를 산산이 짓부서버리신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는 전화의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백철불굴의 정신력의 근본원천으로, 무한한 애국주의의 즐거운 원동력으로 되었다.

간고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의 1 129일, 준엄하였던 2만 7 000여시간.

이 나날 인민군병사들과 인민들은 천만대적이 밀려들고 전쟁형세가 극도로 불리할 때에도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안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사령부를 목숨바쳐 옹위하였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

가슴마다에는 그대의 만세소리가 끝없는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있다.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로 빛내이고 세기를 넘어서도 공화국을 새로운 상상봉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7.27의 승리 전통을 공화국인민들은 사랑하며 세월과 더불어 끝없이 전해가고있다.

을 위하여 돌도 없는 청춘을 바쳐 적화침을 몸으로 막아 돌격로를 열었으며 《후방도 전선이다!》는 전투적주호밀에 싸우는 고지들에 사랑과 탄약을 지원하며 침략자들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기고 전승의 신화를 안아왔다.

전화의 나날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청석마냥 굳게 자리잡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은 그 어떤 책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형성된것이 아니다.

날아가던 새들도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떨어지는 강추위, 벼속까지 에이는 칼바람속에서 극심한 식량난과 무서운 병마를 이겨내며 목숨으로 한치한치 열어나간 항일의 혈전만리가 새겨준 피의 진리였으며 나라를 찾아온 전철세의 애국자께서 주신 땅과 노동자가 주인된 일터에서 참된 삶을 누린 공화국인민이 실천으로 깨달은 역사의 신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불타는 믿음을 지니고 조국의 한치한치 땅을 피로써 지킨 인민군전사들과 전쟁승리에 모든것을 다 바친 후방의 인민들에 의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사령부결사옹위정신, 수령중심의 단결의 정신, 억척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던 자력갱생의 그 정신이 싸우는

승리의 전통은 대를 이어

전후 나라의 형편은 너무도 어려웠다. 자급도 부족하였고 안팎의 정세도 복잡하였다.

무엇으로 폐허를 가실 것인가. 무슨 힘으로 공장과 거리를 일떠세울 것인가.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새 전쟁도발에 광분하였고 음모가, 야심가들은 수령에 대한 인민의 흠모를 든장질하였으며 대국주의자들의 간섭 또한 로골적이였다.

피로써 전쟁승리를 안아온 공화국인민은 재더미우

조선의 기상으로 높이 펼쳐지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 걸인불발성은 공화국인민의 특유의 기질로, 투쟁본래로 공고화되었으며 사회주의 조선의 승리를 추동하는 고귀한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령사를 창조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승화시킨 공화국의 전승세대는 혁명전통계승의 초석을 마련한 자랑스러운 세대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전후 공화국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새 령사를 창조하고 공화국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해나갈수 있는 긍지높은 전통과 재부를 창조하였으며 세계의 정치구도를 변화시키고 자수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한 승리의 7.27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전후후부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후의 재더미를 헤쳐며 령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눈부신 전진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정전후 불과 한주일만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나라의 주요간선들에서 철도수송을 시작하였고 원수들의 명목적에 의해 재가루만 날리던 폐허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은 불과 40일만에 자체의 힘으로 전기로를 복구하여 첫 물품을 뽑았다.

1955년에 벌써 나라의 주요공업부문 생산량은 전쟁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수도 평양이 웅장하게 일떠서고 함흥, 청진 등 여러 도시가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다.

사랑하는 조국땅우에 천리마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6만2천력의 분과업연기에 그 신심과 배짱, 희망과 락



판으로 충만된 공화국의 전승세대들은 전화의 포연속에서 승리할 레일을 내다보시며 아름다운 미래의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후의 재더미를 헤쳐며 령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눈부신 전진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정전후 불과 한주일만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나라의 주요간선들에서 철도수송을 시작하였고 원수들의 명목적에 의해 재가루만 날리던 폐허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은 불과 40일만에 자체의 힘으로 전기로를 복구하여 첫 물품을 뽑았다.

1955년에 벌써 나라의 주요공업부문 생산량은 전쟁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수도 평양이 웅장하게 일떠서고 함흥, 청진 등 여러 도시가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다.

사랑하는 조국땅우에 천리마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6만2천력의 분과업연기에 그 신심과 배짱, 희망과 락

서 12만명의 강편을 밀어내고 19만년도 하기 어렵다면 외아들용광로에서 27만명의 선철을 생산하는 기적도 창조되었다.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은 세계를 놀래우며 보퉁의 상시으로는 3~4년이 걸려야 한다던 수백리 철길공사를 불과 75일동안에 해체

시켜 세인을 놀래웠다. 침략자를 쳐부신 승리의 기상안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백걸음을 내달리는 거창한 천리마진군속에 트랙터를 자동차, 불도젠과 대형양수기가 태어났다.

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과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남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 몇세기를 거쳐 한 공업화의 령사적과업을 불과 14년동안에 수행한 기적이야말로 기존의 개념이나 경제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상상할수없게끔 하는 놀라운 기적이었다.

공화국이 령전전승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탁월한 선군령도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승리의 령사를 더욱 빛내주신 김정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길이 빛날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장기적인 반제대결전을 기어이 주체조선의 최후승리로 결속되고 자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이 경애하는 그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령도력과 담대한 배짱, 사상결단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공화국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정치군사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대국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했던 시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밑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왔으며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고 천리마의 기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터전을 다진 전승세대의 넘과 정신은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령도의 전 기간은 나라에 1950년대의 조국결사 수호정신이 차 넘치도록 하시였으며 남들이 눈앞의 《번영》만 추구하며 사회주의신념과 신조를 버릴 때 전승의 정신과 의지로 인민을 불러일으키어 공화국을 사회주의의 불멸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지난 세기의 준엄한 년대들에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사건과 같은 반제대결전들에

서 공화국이 령전전승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탁월한 선군령도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승리의 령사를 더욱 빛내주신 김정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길이 빛날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장기적인 반제대결전을 기어이 주체조선의 최후승리로 결속되고 자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이 경애하는 그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령도력과 담대한 배짱, 사상결단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공화국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정치군사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대국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했던 시대

는 영원히 끝장나게 되었다. 참으로 공화국인민들과 후대들이 영원히 전승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것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아오신 가장 뜻깊고 공자높은 영훈이였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위대한 사상과 함께 고귀한 투쟁정신과 전통은 혁명하는 나라와 인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으며 빈터우에서 천리마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한 위대한 정신력과 불굴의 투쟁정신은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앞길에는 여전히 시련과 난관이 증첩되어있다. 온 지구를 공포에 빠뜨리고있는 세계적인 방역위기, 려이어 들이닥치는 파괴적인 자연재해들,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

은 대승리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전승의 전통과 정신력으로 새로운 시대정신들을 창조하고 세계적 사변들을 이룩하며 승리를 펼쳐온 지나는 70여년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장악하고 령도자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비범출중한 예지와 통찰력, 불철주야의 사색과 헌신으로 조선의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즐기게 인도하는 불멸의 지침과 위력한 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시고 온 나라 인민들이 무한한 신심과 용기에 넘쳐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지나온 주제100년대의 10년 간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필승의 신심높이 양양한 미래로 나아가는 철석의 신념이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나날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굳게 믿고 순결한 마음으로 따르고 받들어 올혜의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며 국가의 장래발전과 인민생활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천만의 역사의 신념이다.

일단 결심하시면 반드시 자랑찬 현실로 전변시키나가는 경애하는 그의 령도따라 인민은 기세충천하여 펼쳐나갔고 공화국의 곳곳마다에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들이 려이어 일어나고있다.

새로운 평양속도, 시대정신이 창조되고있는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과 현대적인 보통강강안다락주택구건설장, 걸적의 5 000세대 살림집건설장의 눈부신 전변은 또 얼마나 광휘로운 미래와 인민의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전승세대의 피와 땀을 이어받은 이 땅의 후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들같이 몸쳐 조국해방전쟁에서 높이 발휘된 백철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전통, 투쟁기풍으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더 높이 울릴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전승의 전통은 주체조선의 령사에서 승리의 전통으로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